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303 호

금주 법구

부처님을 염(念)하여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고난을 떠나고 고난이 몸을 떠나
온갖 재앙이 무(無)로 돌아간다.
-몽수경-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1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3성현' 사적공원 만든다

대구분지의 남동부에 자리잡은 경북 경산시는 불교사는 물론 한국 정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원효, 설총, 일연스님 등 세분이 탄생한 유서깊은 고장이다. 해동불교의 초조로 불리우는 원효(617~686)스님은 현재 경산시 자인면인 불지촌(佛地村)에서, 이두를 완성시킨 설총(654~?)과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1206~1289)스님은 지금의 경산인 장산군(獐山郡)에서 출생했다.

신라 선덕여왕 11년 압량주 장산(獐山)으로 처음 명명된 경산시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재가 있다.

일명 '갓바위 부처님'이라 불리우는 선본사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431호)과 불굴사 3층석탑(보물 429호),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을 포함한 보물 5개, 사적 3개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 다수의 도지정 비지정 문화재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장을 대표하는 원효, 설총, 일연스님과 관련된 지정문화재는 한 곳도 없다. 다만 원효스님의 탄생지로 추정되고 있는 제석사와 원효스님이 창건하거나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원효사, 불굴사, 반룡사 등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정도다.

최근 경산시가 민족 정신문화의 상징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원효·설총·일연 삼성현(三聖賢) 사적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세 분의 사적이 소실된 아쉬움을 달래주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산시는 오는 5, 6월쯤 삼성현 역사 유적에 대한 전국 규모의 학술 세미나(3성현의 탄생지 조명을 중심으로)를 개최해 학자 및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모은 후 남산면 인흥리 일대 15만평에 삼성현 추모관, 연구관리시설, 문화전시실, 휴양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이 사업에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

반기내에 도비 1억8천만원을 들여 제석사 대웅전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등 3성현 관련 유적정비에 착수했다.

지자체가 설사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사적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불교 홍포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조계종과 관할 본사인 은해사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의 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정체성 찾기' 나선 조계종

"수행·교육체계 확립"

무차선회·선원장 연찬회 등 개최
3월 신도교육 전국사찰 의무시행

올 한해 수행과 출·재가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한국불교가 1600년의 장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사회 주류사상에서 밀려난 것은 전통 수행체계와 출·재가교육체계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반성 아래 한국불교가 수행과 교육이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불교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과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일 전통수행체계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과 승려 재교육, 신도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교육원은 올 한해를 '수행과 교육체계 개선의 해'로 정하고 전통 수행체계 확립을 위한 무차선회 개최, 전국 선원장 연찬회, 선원 지원과 안거성만자 방함록 전산 입력 및 분석통계자료화 등의 수행관리체계를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단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불교적 실천과 위상 확립을 위해 출·재가교육도 활성화된다. 교육원은 승려 재교육진흥위원회를 출범시켜 재교육을 제도화한다. 승려 재교육은 행자교육수료자와 비구·비구니 재교육,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본·말사 주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또 재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승려 양성을 위한 송광사 문화재관리전문교육원을 비롯한 특수학교와 각종 학림, 율원의 신설 추진, 석사 이상의 학술전문인력 및 대학원 재학승 종단관리 등의 재교육 지원사업도 전개된다.

포교원은 3월부터 전국사찰에서 신도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교재발간과 교육시행령 제정, 기본교육 중점사찰 지정, 불교대학 인가제 시행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재교육도 실시해 지역발전과 환경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역할과 활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에 회향하는 신행모델도 제시한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2001년 새연재

종하 같이 종더 휘기하게 '세상 속으로' 21세기의 새두에 선 현대불교의 다짐입니다. 늘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문화의 세기 또 평화는 이 시대의 호흡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새 기획과 연재도 불교이념과 세상 한 구석에서 빛을 밝히는 등대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 융 임상화하자는 의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한 호도 거리지 않고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한 번은 뵌 현대불교의 자세 중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담기에 외적히 그릇은 아니었고 못다한 점들이 아쉽습니다.

그러서 2001년부터는 큰스님들의 가르침 이 편과 지면을 무루 공립이 보면서 독자 여러분과 큰스님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갈 것입니다.

문학 속의 불교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문학 또한 그 추구의 궁극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이념과 문학이 상이한 거대한 산이자 영원의 바보지 않을 문학의 자양의 샘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첫째 이야 문학평론가 김홍근 씨는 문학 작품에 녹아든 불교의 본질을 탐구해 나가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강성으로 보는 절

이번으로 사진 찍기 사찰가 한 번 씩의 작업 제도를 한 바다로 끝맺는 않습니다. 피사체를 단순히 복제해 낸다거나 사진가의 자의적인 해석을 극도로 자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반 그대로 보되 그 바탕처럼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사람 마음의 정수를 찾아 보일 것입니다. 종교도 마이없는 우리 절 보기 의 동행자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스 속 뉴스

이번에 뉴스 기사 라는 것은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이면의 사회 분위기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그에 모르 이해되는 일부만 또는 모든 사건들의 밑에 숨어 내려간 의미는 숨은 뜻, 그것 때문에 간과되기 쉬운 진실의 일면을 찾자는 의도에서 '뉴스 속 뉴스'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이는 정답 이 될 수 없으며 독자 여러분의 관심 혹은 한 것을 기대합니다.

중국 산동 학술기행

중국 대륙 속에 뿌리내린 한국 불교의 자취를 찾기 위해 기획된 중국 산동지방의 불교 문화와 한국 불교 고찰 학술 기행을 17회에 걸쳐 나눠 싣습니다.

조계종 교육원과 한국불교의 역사은 가능성과 교수에는 이번 학술기행의 원인으로 도영스님 보광 스님 하주 스님 조영희 이경자 김문호 등 중국의 불교학과의 사학과의 교수들이 참여합니다.

벌써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주최로 8~12일 열린 전통등 강습회 참가자들이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문양채색 작업을 하고 있다. 세상을 환한 불빛으로 밝히겠다는 서원을 담은 스님과 불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강습회에는 18개 사찰과 단체에서 4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회관 6월 착공"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 새해 종무계획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사진)은 11일 올해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에 불교문화회관 건립불사를 시작 2002년 내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3월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6월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이날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들이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불교문화회관 건립 불사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 완료 △사면·복권 실시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사부대

중 교육 활성화 △사회·문화 활동 확대 △종무행정 체계 정비 및 불교정보화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달라이 라마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방문을 환영하지만, 종단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는 다녀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연합감찰제 실시 총회안건 상정

종단협 9일 간담회

종단협은 9일 열린 종단대표자 간담회에서 연합감찰제 시행 문제를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조계종 태고종 등 15개 종단 대표들은 "종단연합감찰제의 시행을 통해 선도 및 규제 활동을 전개하는 문제를 총회에서 진지하게 거론하기로 했다"고 사무국장 법현스님이 밝혔다. 또 북한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각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종교간 화합 정부 적극 지원"

문화부장관 초청 종교계 대표 간담회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이민신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등 7개 종교대표들을 한국의집으로 초청,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 남북평화협력 등 국정현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각 종단대표들로부터 종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종교간 화합 등 종교문화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종교대표들은 지난 해 추진됐던 종교대표들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금년 중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정대스님, 이민신 회장, 김종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신부), 김광욱 천도교 교령, 장응철 원불교 교정원장, 최창규 성균관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회장, 김순길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서적의 모든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 (02) 737-

一心佛院
각종 불상/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02-725-2030 / 725-2040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중량 3,300관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